

## ‘성역화 원만회향’ 모연 릴레이로 불지핀다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 날

### 그때는 몰랐던 진실

머칠 전 아침 콧속 찌르는 편두통이 시작되니 머리 전체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두피를 지압하고 심호흡을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약을 안먹고 참아보려 했지만 통증이 멎지 않아 구급함을 뒤져 두통약을 찾았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선지 손에 힘을 주어 눌러도 밀봉돼 있는 알약이 쉽게 개봉되지 않았다. 성이 난 듯 통증은 더 재촉했고 아무리 애써도 포장이 벗겨지지 않았다. ‘본드로 붙어놨나? 도대체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이토록 어렵게 만든거야?’ 짜증이 올라왔다. 제품에 지쳐 결국 포기하고 약창고에 약을 던지듯 다시 집어넣었다.

머칠 후 ‘노인학대·자살방지 워크숍’에서 자살방지센터를 운영하는 한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알약에 얽힌 사연을 듣고 서야 이해하게 됐다. 알약을 복용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가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함도 있지만 음독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약을 과다복용하기 어렵게 만들으로써 순간적인 음독자살을 막는 구실이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음독자살을 시도하려고 알약을 까다가 지쳐 포기했다는 웃지 못할 사례를 듣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머칠 전 두통약을 먹으려다 그만 둔 적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 당시엔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제약회사를 원망했는데 이유를 알고서야 이해가 됐고 다행스런 생각도 들었다. 이후부터 불편하거나 성가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려려 흑어라도 이 사소한 불편함이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깊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되면 이해하고 공감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곁에 또르르 구르는 낙엽 하나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차가운 벼랑 끝에서 한번 만이라도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는이가 있다면 한 걸음 물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를 위로하지 않으면 내일 사막이 될 것’이라는 시귀가 문득 생각난다. 나는 과연 내 주위의 인연을 토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중하게 되짚어 본다.

거창 죽림정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할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 2016년 12월 31일 기준)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총무원장 스님 스마트폰 들고 중앙신도회장 동참 권선 독려... 신도에서 신도로 이어져 탄력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 50일 동안 집중캠페인 펼쳐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종단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현재 30% 정도 진척을 보이는데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전화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동참했으면 합니다. 신도회장님도 전화해서 더 많은 분이 모연불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지난 6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릴레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8월17일까지 50일 동안 집중 릴레이 후원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 캠페인은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모연 동참을 독려하면, 설명을 들은 신도가 연속적으로 다른 신도들에게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방식에 따라 이날 총무원장 스님에 이어 중앙총회 의장 성문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 성역화불사 추진위 상임부위원장 해홍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범스님, 총도감 지현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 9명의 스님도 사찰 신도회장 등 신도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접 홍보에 나섰다.

이날 스님들은 불사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뜻에서 장엄등 점등식을 갖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장엄등은 모연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50일 동안 불을 밝힌다. 캠페인에는 성역화불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모연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동참 할 수 있다. 성역화 불사 추진위는 이색적인 모연방식을 통해 스님이 직접 홍보함으로써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에 2차 초하루 동시법회를 병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모연 동참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와 총무원 일대를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공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장엄하는 대작불사이며,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종단은 이 불사를 최우선으로 삼고 총무원장 스님의 남은 임기 내 첫 산을 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모연의 밤 이후 현재까지 약 40억원이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모였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불교중앙박물관 문화강좌 ‘문전성시’

수강생 전년 대비 200% 늘어 ‘눈높이에 맞춘 쉬운 강의’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불교문화강좌의 마지막 강의를 한창인 지난 6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은 스님과 재가자들이 북적였다.

시대별로 다르게 봉안되는 탑 속 경전과 소탑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중앙승가대학교 수장각 스님의 강연을 듣는 모습이 어느 때 보다 진지했다.

박물관이 불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

교문화강좌를 개설한 것은 여덟 번째로, 올해는 230여 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지난해 9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20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출석률도 높아 매회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수강료가 무료로 전환된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초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 프로그램도 큰 역할을 했다. 수강생 대다수는 40대와 50대 사이 불자들이 불교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신생활을 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도다.

5주간 진행된 수업에서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이 ‘사찰 건축 속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흥병화 전통사찰 전수조사 연구실 책임

연구원이 불교건축에 대해, 김민규 간송미술관 연구원이 ‘도감사 도선국사비와 17세기 불교 석조미술’에 대해 강의했다. 또 정각스님은 두 차례에 걸쳐 ‘불교 신앙의 사회적 의미’와 ‘불교 내부 장엄과 의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찰의 신앙적 의미부터 법당, 탑 등 자주 접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강의를 이뤄진 덕에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쉽고 재미있게 강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 “리우올림픽 한국선수 선전을 기원합니다”

체육인 전법단·불자연합회 6일 태릉선수촌법당서 범회

조계종이 2016년 브라질 리우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범회를 마련한다. 조계종 체육인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는 6일 오후7시 서울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리우올림픽 선전기원범회’를 봉행한다.

이날 범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과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홍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체육인불자회 임원과 불자선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이용대 선수와 2012년 런던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우, 양궁 국가대표 이승윤, 구본창 선수 등 각 종목 우승 후

보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이날 범문과 함께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한편 2016 리우올림픽은 오는 8월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며 28개 종목, 306개 세부 종목에 걸쳐 선의 경쟁을 펼친다. 200여 개 나라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에 든다는 ‘10·10’ 목표를 세우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지난 6월30일 우란분절을 맞아 강화 북문사에서 입재기도가 한창이다. 문 밖에는 백등이 영가를 추모하듯 일렁인다. ▶관련기사 4·5면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대학생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2016 KBUF Young Buddhist Camp

8. 4. 목 ~ 7. 일 / 한국문화연수원 및 공주 마곡사 일대



교통 및 신청문의 02-732-0239 02-739-0913

홈페이지 | www.kbuf.org

주변의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 참가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



원영스님 (청춘강연)

이임선 교수 웃음을 잃어버린 당신! (웃다, 웃다)



대학생에게 응원과 힘이 되어주는 <청춘 is 원들> 활기차고 흥겹게 즐기는 축제 <별빛문화제> 자연을 느끼다. <포행>, <마곡사 순례>

참가대상 | 대학생 누구나  
 참가비 | 6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52868(예금주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계좌 | 농협 053-01-252868, 국민 023-01-0565993 (예금주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금은 대학생 포교를 위해 사용되며,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Korea Buddhist University Federation